



대한민국 경제리더도시 아산이 뛰고있다

세계 최첨단산업의 메카 아산! 10년 내외에 50만 도시로

전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졌던 5·31 지방선거에서 아산시민은 안정속에 지속적인 발전을 갈망하는 듯 과반수 이상이 현직 강희복 시장에게 지지의 표를 던졌다.

메니페스토 선언 등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 정착과 함께 아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었던 이번 선거는 아름다운 경쟁, 축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아산시민들도 후보자들의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자기의 한 표를 행사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21만 아산 시민들의 바람은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 아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은 20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의 실현이 마도 아산의 밝은 미래와 직결 된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7대 악성민원을 시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공해

해결해 냈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도 함께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첨단산업의 유치와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은 온양 도심권 개발 전략이 유권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0년 내외에 50만 인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신도시조성, 온양권개발 등 실현 가능한 일로 비쳐지면서 리더도시 아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호소로 아산의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충분히 유권자의 마음을 흡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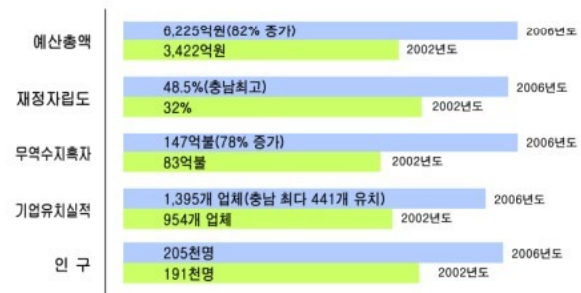
이제 아산시민에게 남겨진 과제는 흩어진 이견을 수습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얼마만큼 빠르고 성숙하게 아산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서로 힘을 모아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아산은 가야할 방향과 행동할 원칙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역의 리더를 주심염으로 시혜와 늘기를

모아 아산발전을 위해 진력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며 선거전에 내 걸었던 공약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공약실천 계획 4-5면에 게재)

그래프로 보는 아산의 어제와 오늘



아산호와 삼교호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개설 및 관광단지 조성 조감도

시청앞 잔디광장 시민쉼터로 거듭 났다

분수대, 야외조명, 건강타운 등 편리하고 아늑하게

시청 앞 잔디 광장이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잔디 광장은 분수대를 설치하고 야간조명시설을 만들면서 멋들어진 조경수와 구조물 등으로 음악소리가 들리는 쉼터이자 휴식처이다. 이와 함께 시민 현장비도 자리를 같이 하여 아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려나게 되는 애항심의 발원지 역할도 함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경트랙과 각종 건강기구들이 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기며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시민건강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여기에 관내 어린이집 꼬마 손님들이 시청을 견학하고 점심 도시락을 먹는 즐거운 장소로도 빈번히 이용되고 있어서 아산의 명소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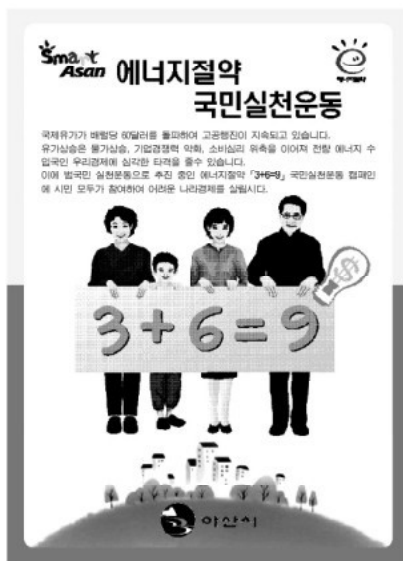
꼬마 손님들이 즐겁게 뛰노는 또 하나의 장소는 광장 중앙에 있는 분수대이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분수의 물줄기가 신기한 듯 손으로 잡아도 보고 얼굴을 대보며 일곱줄 웃음 가득 신발은 참범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를 머금게 한다.

또한 각종 지방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쉼터로 알려져 나갔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아들고 있다.

아침시간을 이용해 이곳을 자주 찾는 다는 시민 김모씨는 "아침 일과를 이곳에서 시작한다. 건강도 지키고 휴식도 취하며 집에서 가져온 보온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로운 하루를 구상 할 수 있어 좋아하게 됐다. 참 매력적인 장소다"라고 말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수칙

-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 밥을 먹고 바로 수영하거나, 손, 발 등에 염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 하기
-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는 어른들과 함께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물놀이 하기
-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 수영 금지
- 하천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질수도 있음

로 안전구역내에서 수영하기
- 보트장이나 풀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물놀이사고 대처요령

-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로 신속히 신고
- 친구 등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를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기
-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

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곤란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합(和合)에 대한 욕구가 사회 발전을 부른다!

변증법에서 테제와 안티테제 사이(Distance)를 차이 또는 거리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곧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만약 이 차이가 없다면 그 자체로 완성된, 그래서 더 이상의 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려 의미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다.

이것은 민주 사회 발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만일 우리 사회 속에 갈등과 이견(異見)이 없다면 사회는 정체(停滯)되고 더 이상의 발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사회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갈등과 이견의 존재가 전제(前提)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면 갈등의 존재만으로도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갈등 그 자체는 통합적 기능보다는 사회 해체적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갈등은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혼란과 붕괴의 원인이 된다. 말하자면 테제와 안티테제 사이의 거리는 연원(淵源)적으로 분리(分離)적 본성(本性)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테제와 안티테제 상호간의 화합(和合)에 대한 욕구이다. 이 화합에 대한 운명적인 욕구가 없다면 발전은 고사하고 모든 존재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즉 파멸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은 갈등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이 갈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무사히 치루어졌다. 선거기간 동안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해석들이 나왔고, 그것을 시민들로부터 인정(認定)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문서주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이제 아산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고 행동해야 할 위치가 수립되었다고 하겠다. 흠어진 이견을 수습하고 대립했던 갈등을 해소(解消)하여 아산 발전의 공동 목표를 향해 서로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다. 바로 시민들의 선택 그 자체가 바로 화합에 대한 본능적 욕구의 표현이었다 하겠다.

사람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이성(理性)을 가지고 있는 개체(個體)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사회학 의의(意義)도 지닐 수 없다.

즉 분리와 갈등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서는

아무런 사회적 가치(價値)도 창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존립(存立) 자체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바다나 온 것을 향하도록 되어 있기에 한 차례의 갈등은 극복되어야 할 사항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공동체적 사회의 본능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을 통해 보다 나은 단계(段階)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라 하겠다.

우리 아산시는 21세기 한국 경제를 선도하며 동북아 시대의 허브도시로의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장과 좌절의 기로에서 중단 없는 발전을 선택한 아산시민들의 열원에 따라 우리는 이제 화합의 대물결을 타고 보다 나은 아산, 삶이 즐겁고 풍요로운 아산을 향해 20만 모두 힘을 모아 전진해야 한다.

비운 뒤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한차례 갈등은 우리에게 아산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환되어 중부권 중추도시로 자리 매김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길, 이제 화합으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제4대 아산시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제4대 아산시 의회는 2002년 7월 출범한 이후 제1대, 2대, 3대의회 운영을 기반으로하여 한층 더 발전적인 여건과 토대위에 보다 성숙되고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시민의 내변자로서의 역할수행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 그동안 제4대 의회의 주요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의 기능 확립을 위하여 과거와는 달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협력체제와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둘째, 비화기중에도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의원 간담회를 정례화시켜 의사일정 및 의회의 주요운영사항에 대한 논의는 물론 시정의 중요요

핵 결정사항에 대하여도 사전에 협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례회7회(130일간), 임시회 30회(18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이 발의하여 처리한 조례안 22건을 비롯하여 145건의 조례안과 21건의 예산안, 4건의 예산결산, 기타 285건의 의안을 처리하여 지역의 각종 현안이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25건의 시정질문과 535건의 서면질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차원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상정립을 위해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수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의회로서

의 역할수행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단계 성숙된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축! 5월 31일 아산시민이 선택한 사람들

제5대 아산시의회 의원 당선자 현황

가 선거구 (염치, 탕정, 인주)



성명: 김국복
주소: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98-2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한나라당



성명: 임광웅
주소: 아산시 인주면 모현리 189
직업: 농업
소속정당: 민주노동당

나 선거구 (음봉, 둔포, 영인)



성명: 김의균
주소: 아산시 영인면 삼성리 203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한나라당



성명: 현인배
주소: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5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무소속

다 선거구 (온양1, 2, 3동)



성명: 김용규
주소: 아산시 권곡동 254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한나라당



성명: 이기원
주소: 아산시 온천동 306-11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한나라당

라 선거구 (송학, 선암, 도고, 신항)



성명: 김준배
주소: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64-3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한나라당



성명: 조기행
주소: 아산시 신항면 창암리 90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한나라당

마 선거구 (배방, 온양6동)



성명: 유기준
주소: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48
직업: 회사원
소속정당: 열린우리당



성명: 이한욱
주소: 아산시 배방면 복수리 60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한나라당

바 선거구 (온양4동, 온양6동)



성명: 정거목
주소: 아산시 방축동 135-24
직업: 시의원
소속정당: 한나라당



성명: 여운영
주소: 아산시 특산동 부영(아) 104/108
직업: 학원장
소속정당: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성명: 정경자
주소: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38
직업: 농업
소속정당: 한나라당



성명: 김귀영
주소: 아산시 도고면 신유리 292
직업: 농업
소속정당: 국민참여당

도의회의원



성명: 강태봉
주소: 아산시 용화동 57
직업: 도의원(부의장)
소속정당: 한나라당



성명: 이기철
주소: 아산시 온양1동 109-20
직업: 농기계대리점
소속정당: 한나라당

아산시의원 당선자 간담회 개최

5.31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의원으로 당선된 14명의 당선의원 첫 간담회가 2006. 6. 20(화) 10:00에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승호 의회사무국장의 사회로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 참고사항, 자체협의사항, 공지사향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5대 아산시의회 원 구성 및 개원식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신청과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며, 감사위원으로는 첫 아산시 여성 의원인 김귀영, 정경자 의원으로 삼정협의가 이루어졌다.

제5대 아산시의회 개원식

□ 일 시 : 2006. 7. 5(수) 14:00 □ 장 소 :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아산시청 4층)

민원행정서비스 현장

1. 민원은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FAX, 인터넷 등의 민원서류는 접수 후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접수하여 드리고 접수된 문서는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인터넷으로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실시하겠습니다.
- 2. 민원실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민원인이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 복사기 1대, FAX기 1대, PC 3대, 전화기 1대, 돋보기 4세트, 휴대폰 급속 충전기 등을 설치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TV 1대, 신문 6종, 잡지 4종 등을 비치하여

- 민원인이 기다리시는 동안 시무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 전자동철합기 1대, 비만측정기 1대, 발자압기 1대, 시력측정기 1대를 비치하여 간단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원 방문을 대비하여 도우미 벨 3개소, 휠체어 3대, 휠체어리프트 2대를 운영하겠습니다.
- 3. 전자정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증명 사증합급기 1대를 설치하여 민원발급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4. 고객만족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잊으신 물건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습득을 보관함을 설치하고, 각종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종합민원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도움 요청 시 1분 이내에 도와드리겠습니다.
- 차즈미(찾아주는 도우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미야발전 사자문대조 확인을 거쳐 10분 이내에 보호자에게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망과 성원 공약 실천으로 보답

순수한 열정에 시민의 전폭적지지, 여망에 부응하는 노력경주 다짐

강화북 아산시장은 민선4기의 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선 감사드리다며 그동안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아산의 발전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몸 바친 4년의 노력을 시민들이 높게 평가해 준 것이라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많은 시민들로부터 삶의 현장에서 우려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다면서 시민들이 보내 준 성원과 신뢰를 아산발전을 위해 성실한 공약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당선자의 변으로 대신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가진 직원 월례모임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중 행정의 누수 없이 성공리에 시정을 이끌어준 1천여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투입하여 아산 발전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전 직원의 동참을 독려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밝힌 공약사항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현장행정을 통해 자족자족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산의 밝은 미래에 희망을 걸어 보자. 그리고 아산발전의 중심에 우리가 서있다는 가슴 뭉클한 자부심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실히 마련하고 10년 내외에 아산을 50만 인구 도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는 현재 아산시 인구가 21만이고 아산신도시 인구가 17만으로 계획되어 있고 온양원도심권인구를 현재의 9만에서 20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 견뎌내고 있다.

온양원도심권 인구의 유입은 융화택지개발, 모종택지조성, 초사원 개발, 등으로 달성 할 계획이며 재래시장의 활성화 효과와 함께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도비를 확보하여 동서를 관통하는 동서고속도

로와 과천·수원·평택-아산을 잇는 남북간 고속화도로, 남동과 행복·중방리 간의 온양권 국도 21호 확·포장을 실현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타정과 음봉 지역의 624호, 628호선의 확·포장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도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 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광역상수도공급 및 상수도 공급 기반시설 확충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온양권에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시가지 조성 및 온양권 종합 리모델링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

온양권은 지금의 아산이 있기까지 중추역할을 해온 핵심권으로 인식하고 있고 모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구 20만의 신시가지로 조성하는 종합 리모델링 사업을 과감히 추진 할 것이며 이는 핵심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실천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도심권에 위치한 경향서를 도시 미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확보된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며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장항선 철도의 지상화로 시내를 관통하는 연계도로 건설로 원활한 교통과 통행로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온양온천초등학교에서 융화고등학교까지 시내를 관통하는 연결도로가 개설 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로 도심권에는 활기찬 사람들의 발걸음이 찾아들면서 활력 있는 온양권으로 리모델링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지구의 아파트 재건축과 택지조성사업이 이뤄지며 BTL을 활용한 하수도 정비, 문화예술의 전당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에 노력한다면 온양권은 온천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뛰어 넘는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난 것으로 확실하고 있고 또 확실하게 실현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현대인의 건강추구 개념의 보양온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산온천이 관광객수에도 맞게 개발 운영되고 있고 도고온천에는 용기·온천 종합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아산의 명품, 온천도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금 아산은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21만 아산시민들은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정하나하나를 접하면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며 부푼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시청앞광장

아산시 고질적인 7대 숙원사업 해결

- 악성부채 완전 청산 (일반회계)
- 쓰레기 소각장 문제 완전 해결
- 공설운동장 착공
- 설화산 채석장 종식
- 10년간 끌어왔던 인주 제1공단 조성 마무리
- 도심속의 융화동 군부대 이전 완료
- 강당골 정비

아산의 밝은 미래 설계는 현재 진행 중인 아산신도시조성과도 이어져 이미 택지를 조성, 다음 달에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인구 저밀도의 자족형 도시, 인공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아산의 랜드마크 284m의 아산타워가 세워지는 아산신도시는 아산의 모습을 재창출해 낼 것이다.

이는 새롭게 17만에 이르는 인구유입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행정수도와 수도권을 잇는 허브도시, 각종 편의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여유로운 도시로 만들어 아산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황금 알이 될 것이다.

농촌과 서민, 여성 등 각계각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골고루 잘사는 복지 아산을 실현하겠다.

농촌문제는 우리 아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다. 아산은 농업개방 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유통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농기계대여은행과 수리 센터의 운영, 도농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산의 농특산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함께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권역별 복지회관 건립도 추진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이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남산의 공원을 비롯 도심 곳곳에 썬치공원, 수변공원, 교통섬을 이용한 녹지공간으로 파충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시청앞광장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아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적극 건의(추진)하여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상공의 길을 걷고자 산한천 경제자유구역에 아산만권이 포함되어 있다.

아산은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인주공업단지와 연계되는 해변도로로 관광 벨트를 구축하면서 국제자유무역 도시로서의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담당해 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산의 서북부는 수도권 및 중국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전자정보(디스플레이, 반도체), 관광, 휴양, R&D, 교육, 주거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청소년들의 영어교육모습

등 아산의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한국형 아산크리스탈 밸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세계 최첨단 산업의 리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이미 삼성시방산업단지에 난실 규모로든 세계 최대 최첨단의 S-LCD 단지가 가동에 들어갔고 2차 산업단지도 충남도로부터 허가되어 한창 조성중이다.

이는 아산을 세계속의 최첨단산업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시는 첨단산업이 유치아 함께 72만평의 둔포전자정비집적화단지와 6만5천여평의 도고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협력업체들의 용이한 입지여건을 제공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주산업지방산업단지내 현대자동차가 이미 정상 가동되고 있고 삼성 S-LCD 라인이 일부 운영되면서 초일류기업을 중심으로 아산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탐정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S-LCD일부기공과 만조제 수출 증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무역수지흑자 232억불 중 147억불 즉 63.4%를 아산에서 기록해냈고 S-LCD정상가동 되는 2010년에는 1000억원에 이르는 세수증대로 자주 재원확충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3만5천명의 직접적인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 실업을 해소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그 시너지 효과는 아산을 환경해군의 중핵도시로 만들어 놓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앞으로 아산은 최첨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 세계속의 아산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아산을 교육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

지역인재를 배출 할 명문 고등학교 육성과 이를 지원할 시민미래장학재단 설립 하였고 원어민 교육 등 지난 4년간 50억 여원의 예산을 교육부문에 지원하였으며 조직 개편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할 평생학습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평생학습도시지정을 신청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총180억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문화종합공간 조성을 서두르고 있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도립미술관 유치, 신정호생태체육공원 조성, 아의음 악당 건립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5일근무제와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등 미래 관광수요패턴에 적극 대처하고자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내고 있다.

도시민의 양수를 자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농촌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 개념의 체험학습프로그램, 광덕산과 영인산, 도고산을 연계한 레포츠 프로그램도 개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향상을 위한 시민합창단 연주, 아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 실버밴드 공연 등이 1년내내 개최되며 최근 창단된 온양합창단과 고등학교의 매칭밴드도 빈번한 시민과의 만남을 주선할 것이다.

특히 올림피아드 국민생활관, 시청 대강당, 근로자 복지회관 대강당 문화의 집, 대학공원장 등을 적극 활용,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로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도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20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

1. 공설 종합운동장 건립
2. 청소년문화종합공간 조성
3. 충남외국어 고등학교 건립
4. 문화예술의 선당 건립
5. 온천박물관 건립
6. 신정호 종합개발
7. 공설난골당 건립
8. 폐기물 소각장 건설
9. 장영실과학관 건립
10. 용화동 도시개발 사업
11. 도고농공단지 조성
12. 둔포 전자정비집적화단지 조성
13. 배방·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14. 외암민속마을 및 강당골 정비
15. 아산만권 관광단지 조성
16. 광덕산·영인산휴양림 조성 및 웰빙타운 조성
17. 아산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18. 도심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19. 재래시장 및 풍물시장
20. 하수관거 BTL(민간건설 후 시대에)사업 추진



웅기온천종합체육관 조감도(도근원)



읍면동 소식

시장님!

차기 시장에 재선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월 한 달은 전국이 선거를 치르느라 여수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선거후유증은 사라지고, 머지않아 바로 제 4기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할 것입니다.

며칠전 동아일보에 재미있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물러나는 한 3선 시장의 참회록"이었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제목만으로는 실패한 무능한 관료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인터뷰 대상자였던 박팔용 경북 김천시장은 선거에 3차례나 당선돼 11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재임중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받았던, 이 시대의 대표적 명관이라 칭송 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서재만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아산시의 행정이 시장님의 탁월한 경험 하에 더욱 능률적인 시정으로 펼쳐지리라 생각하면서, 차제에 이 인터뷰기사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몇가지만 골라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기 있는 지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산시의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또한 외람 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행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기로 합니다.

박 시장은 지방 공무원에 대해 가졌던 생각도 솔직하게 털어냈다. "시장이 되기 이전에 도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 시청 공무원들 딱 절반만 있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취임 이후 5년 동안 장년퇴직, 정출 등 저절로 나가는 공무원 대신 한 명도 충원 안 했더니 1300명에서 380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쳐 660억 원 을 아꼈죠. 하지만 인력이 없어 이전보다 일 못했다는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내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죠. 공무원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서..."

아산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봉사하고 헌신으로 협력하게 일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염치읍 / 박명숙)



유관기관 소식

징병검사기일연기 인터넷 ONE-STOP처리

- 6월 1일부터 징병서류 없이 신청가능
6월 1일부터 징병검사 기일연기를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
- 신청방법 : 정해진 징병검사일자 5일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의 「징병검사기일연기신청」
- 결 과 : 문자메시지나 본인의 E-mail주소로 통보하여 준다.
- 참고사항 : 징병검사 연기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이 본인이 FAX 등의 방법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안내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2002년 1월 1일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선납하신 분담금 중 폐지 후 잔여 분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신청기간 : 2002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5년간)
- 환급신청대상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자가용자동차소유자(법인포함)
※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번 환급 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별 환급액
-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에서 최고 5,400원까지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400원에서~19,200원까지
- 환급신청방법(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계좌이용 화급신청)
- 전화 : ARS 1588-6117(전국공통), (02)2230-6114(대표전화), 충남지부 (042)520-0114
- 인터넷 : bundam.rtsa.or.kr
- 직접방문 : 공단 부문 및 각 시도 지부에 총무과(신분증 지참)

향토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 기 간 : 2006년 7월 4일(화)~7월 6일(목)
- 장 소 : 육군제6/95부대(충남 연기군 서면 중앙리 육군 제 62보병사단 동원훈련장)
- 복 장 : 전투복(상, 하), 전투화, 전투모, 고무링, 군용요대 착용, 인식표
- 휴대품 : 훈련 소집통지서,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체육복
- 기타참고 : 동원훈련 대상자(간부 1~6년차, 병 1~4년차) 중학생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원훈련을 연기하려고 할때는 대전·충남 병무청(042-250-4464)로 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안내

- 중증장애인(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 20%할인 ('04. 3. 1시행)
- 국가상이 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 20%할인 ('04. 3. 1시행)
-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 20%할인 ('05. 12. 28시행)
-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 15%할인 ('05. 12. 28시행)
- 신청서류 :
- 장애인 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 수급자 할인 :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1~3급)의 경우 서류제출 필요
※ '06년 7월 31일까지 신청서 소급, 8월 1일 이후는 신청 월부터 적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05. 12. 1 ~ '06. 11. 30
- 신청대상(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발생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사건
- 광복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키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혈족관계에 있는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목격한자 또는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자
- 진실규명 범위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각종 인권유린 사건, 의문·의혹사건 등
- 접수기간 : '05. 12. 1 ~ '06. 11. 30
- 접수처 : 진실화해위원회, 충청남도, 시·군 자치행정과
- 문 의 : 과거사정리위원회 02-3406-2500, 아산시청 총무과 041-540-2236

불법체류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 시행안내

- 자진귀국 지원정책이란?
-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사할린 동포 등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보상 및 귀국준비를 도와주는 정책임
- 시행시기 : 2006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한 동포가 형사처연으로 시행기간 안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기간 안에 자수해야 합니다.
- 대상
- 정책공고일('06. 4. 17)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 등 5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 단, 최초 입국가능일('07. 4. 24)기준으로 25세 미만자는 방문취업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예 : 1982. 4. 25. 이후 출생자제외)
- 신청장소 : 중국, 러시아항공노선이 있는 전국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인천·김해·대구·광주·청주공항·인천·평택·속초항 등, 출국 당일 본인이 직접 신청, 대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당일 출국항공권, 위령여권 및 위·변조여권 입국자 경우 '구여권사본 1부',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인 등' 필요, 혼인해소자는 '초체(체적)등본' 필요, 밀입국자는 '별도의 서류' 없음
- 자진귀국 및 재입국 절차
※ 법무부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moj.go.kr)참조
□ 지역주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 금번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통하여 우리 동포 등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 내 · 알 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설치장소 : 아산시청, 염치읍사무소, 배방면사무소, 음봉농협지소, 둔포면사무소, 온양1동사무소, 온양6동사무소, 행정서비스센터
- 가동시간 : 평일 - 09:00~20:00(아산시청내 09:00~21:00 가동), 토요일휴무일 - 09:00~13:00
- 발급서류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의료급여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과세증명서

출산장려금 지원안내

- 우리 아산시에서도 7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접수기간 및 장소 : 06. 7. 1일부터 해당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영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둘째 아(兒) 30만원, 셋째 아(兒) 이상 60만원 1회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1부(해당 읍면동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7월 이후 출생자는 출생신고서 신청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06.1월~6월까지 출생자는 12월까지 신청가능)
- 문의전화 : 읍면동사무소 및 아산시보건소 537-3424(가족보건담당)

충남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일 시 : 2006. 7. 13(목) 19:30
- 장 소 : 국민생활관
- 주 최 : 시립합창단, 아산시

아산 윈드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 일 시 : 2006. 7. 18(화) 19:30
- 장 소 : 국민생활관
- 주 최 : 아산윈드오케스트라

아산시립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 일 시 : 2006. 7. 6(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국민생활관
- 관람료 : 없음(041-540-2789, 041-540-2542)

새주소 건물번호판 부착에 따른 시설물 일제조사

- 기 간 : 2006. 7. 1 ~ 7. 30(1개월)
- 대 상 : 사인이 완료된 읍·동지역(1읍 6개동)
- 건물동수 : 170동
- 내 용 : 2005. 7. 1 ~ 2006. 5. 30까지 신축, 멸실, 개축, 용도 변경된 건물에 대하여 시설물 일제조사
- 향후계획 : 현지조사 후 변동된 건축물 건물번호판 부착

국민생활관 여름방학특강도자기, 미술수강생 모집

어린이들이 창의적으로 성장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2006년 여름방학 특강 회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06. 7. 1일부터 선착순(15명) 초등학생 대상

과 목	요일	시 간	교육과정
어린이도자기교실	월, 화	오전 10시~12시	도자기 기초 및 굽기
재미있는 미술	월, 화	오후 2시~4시	생활속의 미술, 논쟁의 미술

- 수 강 료 : 과목별 수강료 참조(재료비 별도)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수강료(과목당 15,000)
- 교육기간 : 2006년 7월 31일 ~ 8월 22일
- 접 수 처 : 아산시어린이국민생활관 ☎ 537-3901, 3907

승용차 5부제 운영안내

- 요일제 실시 : 지자체의 "선택요일제" 차량은 그 등록 요일을 부제일로 인정, 요일별 5부제 형태로써 끝 번호로 부제참여 요일을 적용
- 요일제 지정방식

유 형 별	요일별 부제 적용차량					공휴일 및 연휴(명)
	월	화	수	목	금	
끝 번호 기준	1·6	2·7	3·8	4·9	5·0	적용 제외

『제6회 청소년 푸른성장 마라톤대회』안내

『청소년 푸른성장 마라톤대회』는 청소년의 "푸른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세대의 벽을 허무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장소 : 2006. 09. 10(일) 09:00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 주최 : 국가청소년위원회, NAVER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종목 : 하프, 10km, 5km, 5km걷기(4개 종목)
- 참가인원 : 7,000명(청소년 3,500명, 일반인 3,500명)
- * 참가비 : 청소년 8,000원, 일반인 15,000~20,000원
- * 대회 종료 후 희망자(중·고등학생)에 한해 주변 환경화 활동에 참가하면 자원봉사 2시간 인정
- 접수 : 인터넷(www.youthrun.co.kr) 및 팩스(02-2203-3231), '06. 8. 18.까지
- * 문의 : 마라톤사무국 ☎(02)2202-7833-4, 홈페이지 www.youthrun.co.kr

- 경품 및 시상품 : 참가자 전원에게 기능성 소재의 T셔츠, 배번호, 완주메달, 기록증(5km, 5km걷기는 기록증 제외) 제공, 추첨을 통해 축구선수(국가청소년위원회 홍보대사) 싸인볼, 시상품으로 MP3, PSP게임기, 디지털카메라,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 제공

□ 부대행사

- 인기가수 미니콘서트, 청소년 동아리 문화마당(마라톤진행시간에도 계속진행) 등 무료해어컨, 페이스페인팅, 전통놀이마당, 가족 레크레이션, 추억의 먹거리 마당 등
- * 영화 <알아톤>주인공 배형진군 그리고 바로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가 함께 달리며 싸인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강당골 차량통행 제한 안내

행락철 교통혼잡 방지를 위하여 차량통제 및 주·정차 금지를 실시합니다.

- 차량통제 : 강당골주차장 ~ 역시(매년 7월 1일~8월 31일)
- 주·정차금지 : 외암마을 입구 ~ 강당골주차장입구 도로 갓길(상시)

시정신문 무료배부 안내

『아산뉴스』가 매일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아산뉴스』는 아산시정과 행사, 생활정보 등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25일 발간되는 아산뉴스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40-2020(아산시청공보체육과 홍보담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6. 6. 12 ~ 7. 7(26일간)
- 조사대상 : 5인 이상의 사업체
- 조사내용 : 종사자수, 급여, 출하액 등 16개 항목

제3회 송악두레논매기 행사

- 일 시 : 2006. 7. 8(토) 오후 12시
- 장 소 : 아산시 송악면 서남대학교 앞 논일원
- 주 최 : 송악중농두레논매기보존회(단장 : 정인화)
- 후 원 : 아산시, 송악면, 송악농협, 송악면이장단협의회
- 행사내용 : 두레논매기, 사물놀이, 주민노래자랑 등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

- 기 간 : 2006. 7. ~ 2006. 10. 10.
- 소독방법 :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 병행
- 운영반별 : - 동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분무소독, 연막소독 실시
- 읍·면지역 면사무소에서 자체 분무 및 연막병행 실시

여성전문능력발전연구회 운영(12회 395명)

구분	일자	장 소	인원명	내용
농촌체험반	7.7	세계꽃식물원	54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전통생활문화반	6.27 ~30(4회)	농업기술센터	30	행주치마 만들기 전통생활문화의 이해
가정원예반	7.11	"	32	여름철 화분관리
	7.20	"	30	수건대
우리음식반	7.12	"	30	전통떡 만들기
농산가공반	7.13	"	36	수박, 노각 장아찌
제과제빵반	7.21	"	24	머핀 만들기
규방공예반	7.25	"	25	여름가방 만들기
농업안전건강반	7.26	"	36	건강관리실 활용, 생활제조

- 문의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537-3810)

피나클랜드! 그 안에서 찾는 행복

충남 아산의 39호 국도를 달리다 보면 영인을 지나 공세리 성당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간쯤의 산허리에 커다란 풍차(?)가 은빛을 발하며 열심히 돌아 가고 있다.

바람을 이용한 물개비라 하여 풍차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유명한 모빌작가의 움직이는 조형예술작품이다. 바람의 풍향에 따라 위치를 달리하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바람개비!

동그란 원형의 통풍구가 작품의 균형을 잡는 게 아닐까? 아니면 오케스트라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봉처럼 길게 솟구쳐진 지렛대로 방향을 잡는 건 아닐까? 그 깊고 심오한 예술의 세계를 혼자서는 도저히 생각해 낼 수 없어 설명을 구하는 수밖에...

전기를 이용한 풍차는 오로지 한 방향을 향해서만 달리는데 그저 인간의 힘이라면 한 방향에 머물 수 밖에 없단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신비한 조형물은 방향도 바뀌고 모양도 각양각색 빛깔도 다양한 게 우리 앞에 섰단다.

끊임없는 바람과 물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문을 여는 날 이곳에는 아생화가 피어나고 튤립과 장미가 만발하며 넓은 천연잔디의 목책 안에는 순한 양들이 여유로운 걸음을 떼어 놓는다.

아생화를 구경하고 새소리도 들어가며 나무 길을 걸다보면 시원한 바람과 예쁘게 단장한 호수가 관광객을 반긴다. 여기가 정신인가 하여 연꽃도 보고 편하게 걸터앉아 아래를 보면 사계절 다른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전망대가 있어 좀더 넓고 멀리 그리고 깊은 바람을 쐬 수 있다기에 열걸음을 쳤다. 망원대에 눈을 올리니 사계절 옷을 갈아입는 다는 넓은 들밭이 마음속까지 시원하다. 아! 이 시원함을 마음껏 담아서 내 일상에 가져갔으면... 너무도 큰 욕심이 나를 당황케 한다.

전망대를 뒤로 한 채 동근 나무 계단을 오르니 산 정상부에 폭포수가 리듬을 타고 있다. 이끼가 끼어 몇 겹의 연을 지내온 듯한, 물안개가 피어올라 어찌만



쳐왔는

데 그 뿌리가

바로 자연의 물이

있구나 꽃과 바람, 물과

산, 그리고 사람의 어울림이

있는 곳 테마파크! 남해안의 작은

섬 외도를 생각하고 만든 사람들, 자연을

소중히 진직하려는 사람들의 손짓, 몸짓이 담

겨 있는 곳. 이곳에 자연이 축복을 내려 바람과 물의

조화를 주었구나. 이것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자연의 축복이 아닐까?

테마파크를 생각하고 현실에 옮겨 온 주인장은 온

유한 상품만큼이나 말수도 부드럽다. "지금 100%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으로는 감당

하지 못할 다양한 관광 패턴과 프로그램들이 우리

테마파크를 보신 분들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올 거

고 그 기발한 생각들 중 우리 파크와 어울리는 아이

템을 살려 낼 겁니다."라면서 작은 음악회, 바람개비

만들기, 알배 먹이주기, 발점법 물렵법, 매실 따기

등 움직이는 체험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귀뜸

한다.

꽃-정(精), 바람-동(動), 물과 빛-정&동(精&動),

고요와 활력이 함께 어울리는 곳, 눈과 귀가 즐겁고

마음의 통풍을 체험하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름다운 아산의 또 더 큰

명소, 테마파크!

7월 21일 그 화려한 비밀의 베일을 벗는다.



웃을 입고

있는 넓은 들밭을 만난다.

잠시 다리 쉼을 하는데 내가 앉은 자리가 화장실 옥상이라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놀라움과 호기심에 올라 올 때를 되뇌어 보니 그렇지, 분명 화장실 표지판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 상층부라! 갑탄 또 갑탄. <깃발>이라는 유치환의 유명한 시가 문득 생각난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선녀

가 목욕을

했을 변화기도 하

고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

끼가 네 도끼냐? 물을 것도 같은 신

비스러움이 있는 이곳에서 한여름 밤 작은 음

악회를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곳에도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니 다시

한번 놀라움이...

이곳은 오래된 석산으로 석재의 품질이 좋아 아산

만 방조제의 디딤돌로 인기가 제일이었는데... 석

재를 캐내 상처가 많았지만 그 아픈 상처를 간직

하면서 화려한 오늘의 변신을 기다린 것은 아닐까?

꽃의 향기와 바람 그리고 호수에 마음을 빼앗겨

돌아 볼 수 없었던 크고 작은 바위들이 이 테마파크

의 밑바탕을 이루고 나무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을 만들었음을 놓칠 뻔 했다.

꽃길을 오르며 중간 중간에 줄무늬를 간직한 바

위들이 있기에 어디에서 옮겨다 놓았나하고 지나

알기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여행

솔라라 ♪ 호른을 붙어보는 오케스트라 체험음악회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알초 배우는 시간

시가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와의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벌써부터 기대와 호기심으로 7월 한여름 밤을 기다려지고 있다.

7월 21일(금) 19시 30분 서울뉴데이심포니오케스트라(다위 40명)가 아산을 찾아 국민생활관에서 요한스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을 지휘자의 재미있는 해설을

결들여 연주 할 계획이다.

아산오케스트라(단장 이우순)이 주최하는 이번 연주회에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베토벤 운명 교향곡 1악장 등을 1부에서 만날 수 있고

비제의 카르멘 서곡, 드보르작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제4번 4악장, 로시니 율리안텔 서곡 등이 장중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실어진다.

특히 요제프스트라우스의 대장간 폴카를 연주하면서 이

중급 지휘자에게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악기를 다루보는 체험의 시간과 알초도 배워 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색다른 클래식 여행을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매력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유명 곡을 중심으로 연주하면서 자세한 해설까지 덧붙여 클래식 하면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친숙한 음악으로 우리 곁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